

##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담당 : 정승원(010-4456-5047)

### 민주당 혁신위,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지지·후원 동참 입장문 발표

- 더민주 혁신위, 우크라이나 지지·후원 입장 발표.
- 어떠한 이유에도 전쟁은 정당화 될 수 없어.
- 우리 사회의 정치가 혁신을 길을 가자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와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
- 우크라이나 아이들과 국민들에게 슬픔과 위로.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 이하 더민주 혁신위)는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전화에 휩싸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후원에 동참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발표했다.

더민주 혁신위는 “전쟁의 참상은 전쟁이 멈춘 후에도 지속되는 재앙을 초래한다.”며 “전쟁은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잔혹한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민주 혁신위가 함께 하겠다.”는 일성으로 시작한 이 날 발표에서, “전쟁의 종식과 더 이상 전쟁의 비극이 없길 바라며 오늘의 지지·후원 발표가 전쟁의 공포에 울부짖는 우크라이나 아이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쟁으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슬픔과 위로를 전했다.

장경태 공동혁신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정치가 혁신의 길을 가자고 하면서 우크

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와 아픔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지지·후원 동참 입장 발표의 배경“이라고 설명하였다.

❖ 첨부 : 더민주 혁신위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우크라이나 지지·후원 입장 발표문

---

## 더민주 혁신위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지지·후원 동참 입장문

---

[민주당 혁신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후원에 동참합니다.]

전쟁은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도 안 되는 잔혹한 범죄입니다.

전쟁의 참상은 전쟁이 멈춘 후에도

오래도록 지속되는 재앙만 초래할 뿐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주일째 이어지며,  
무차별적인 무력행사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 순간 어린 아이들이 죽음에 이르는  
가슴 아픈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잃고 부모는 아이를 잃습니다.

가족과 이웃은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이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침략과 전쟁의 참혹함을 겪었습니다.

그 잔재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은 자들의 아픔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평화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및 정치와 전혀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가 혁신의 길을 가자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와 아픔을 모른채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혁신위는 전쟁의 종식을 외칩니다.

더 이상 전쟁의 비극이 없길 바라며,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하고 후원에 나섭니다.  
전쟁의 공포에 울부짖는 아이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전쟁으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한 없이 깊은 슬픔을 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평화의 빛이 우크라이나에 함께 하길 바라며,  
미약하나마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간절히 응원합니다.

2022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장경태, 조윤애, 김미숙, 김승원, 김어진, 김준혁, 김필성, 김현임,  
민형배, 박용수, 오성일, 유정주, 윤영덕, 원현우, 장승진, 지경훈,  
조경훈, 전용기, 정다은, 한아름, 홍창민, 황은주, 황운하 일동